AI 시대,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을 말할 것인가

■ 빛고을 평화포럼, '21세기 문명의 도전과 신학적 응전'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신앙을 묻다

인공지능이 사람의 말을 흉내 내고 노동의 일부를 대신하는 시대, 교회는 무엇을 근거로 인간의 존엄을 말할 수 있을까. 기술이 생산성을 높일수록 그 혜택은 누구에게 돌아가고 변화의 부담은 누가 떠안는가. 지난 10월 29일 광주무돌교회에서 열린 빛고을 평화포럼은 이 물음을 신학의 언어로 다뤘다. 한국기독교장로회 광주노회(노회장 고병국 목사), 크리스챤 아카데미(이사장 채수일 · 원장 이상철), 빛고을 평화포럼(이사장 김민호 목사 · 원장 김원배 박사)이 함께 마련한 이번 포럼의 주제는 '21세기 문명의 도전과 신학적 응전'이었다.


주제강의하는 빛고을평화포럼 김원배 원장.

기장 광주노회 · 크리스챤아카데미 · 빛고을평화포럼 공동 주최
노동의 존엄과 분배의 정의, 창조세계의 회복을 교회의 과제로

"교회가 하나님을 말하는 방식, 이웃의 이야기를 얼마나 가까이서 듣고 나누는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서다

첫 발제에 나선 김원배 원장은 두 차례 세계대전을 전후해 칼 바르트와 디트리히 본회퍼가 맞닥뜨린 질문을 돌아봤다. 전쟁과 세속화가 기존의 신앙 언어를 흔들던 때, 두 신학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을 온 세상의 주로 증언했다. 김 원장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셨다는 성육신의 고백에서 신앙과 일상, 교회와 사회를 갈라놓는 사고를 넘어설 근거를 찾았다. 그는 교회를 종교의 울타리에 가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안에 한정해 온 사고를 넘어, 가정과 일터, 사회의 공적 현장을 비롯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회퍼가 옥중에서 남긴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라는 역설도 이 맥락에서 읽힌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세상의 문제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감당하는 일이다. 십자가에서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은 교회가 이웃의 고통 앞에서 어떤 책임을 지는가라는 물음으로 이어진다. 김 원장은 이 물음을 AI 시대로 가져오며 인간이 기술을 통해 신의 자리에 오르려는 욕망을 경계했다.

기술의 혜택은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정미현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교수는 '유토피아, 디스토피아 그리고 하나님나라'를 주제로 기술 발전의 사회적 결과를 짚었다. AI가 노동을 대체할 때 일의 의미는 어떻게 달라지고, 생산성 향상의 열매는 어떻게 나눌 것인가. 정 교수는 취리히 종교개혁에서 실마리를 찾았다. 츠빙글리와 동료들은 당대의 인쇄 기술을 활용해 번역 성서를 보급하고, 분배의 정의와 공동선을 추구하며 사회개혁을 시도했다. 정 교수는 이 개혁 정신을 오늘에 적용하는 과제로 노동의 가치를 다시 묻고 기본소득 논의에 신학적으로 응답하는 일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하나님이 시작하고 완성하시는 나라를 기다리는 신앙이 오늘의 불의를 바로잡는 실천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그 실천의 범위에는 개인의 구원과 사회 공동체의 회복, 인간과 다른 피조물의 관계가 함께 들어간다. 기술 발전이 가져올 편리와 성장에 더해 창조세계와 다음 세대가 감당할 부담까지 헤아려야 한다는 뜻이다.

지역교회가 만나는 AI 시대

두 발제를 지역교회의 자리에서 읽으면 질문은 구체적이 된다. 일터가 바뀌는 동안 소득이 줄거나 일자리를 잃은 이웃의 목소리를 교회는 어디에서 들을 수 있을까. 행정과 복지 서비스가 디지털화될 때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게는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 교회가 AI로 번역과 안내 업무에 드는 시간을 줄인다면, 그 시간을 누구를 만나고 돌보는 데 쓸지도 물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을 증언한다면, 기술 전환 속에서 일과 소득, 관계가 흔들리는 이웃의 삶도 신앙의 관심사가 된다. AI 시대에 교회가 하나님을 말하는 방식은 그 이웃의 이야기를 얼마나 가까이에서 듣고, 변화의 부담을 얼마나 함께 나누는가에서 드러날 것이다.

빛고을 평화포럼은 광주 5 · 18민주화운동의 역사와 정신을 신학적으로 성찰하고, 하나님나라의 정의와 평화를 실천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연대를 이루고자 설립됐다. 정의와 평화, 교회 일치와 사회적 책임을 연구하며, 교단을 넘어 시대의 과제를 논의하는 포럼과 목회자 · 평신도 교육, 국제 평화 연대를 추진한다. 이번 가을포럼은 그 설립 취지를 인공지능 시대의 문명적 도전으로 확장한 자리였다.

주필 이박행 | 건강한사회와교회포럼 상임대표


신학과 목회를 연계한 세미나를 듣는 참가자들.


포럼에 참석한 교계지도자들.



발제자와 공동주관 관계자 기념 촬영.

칼빈부흥사회

주제 : 말씀이 살립니다 (왕하3:114~12)

김대성 원장 (남경산기도원) · 서정우 목사 (대표회장) · 신 석 목사 (대표회장) · 이규봉 목사 (총괄회장) · 이진구 목사 (대회장)
조한우 목사 (총강사단장) · 최용남 목사 (진행위원장) · 오정두 목사 (사무총장) · 김현상 목사 (서 기) · 조용채 목사 (회 계)

■ 일시 : 2026. 11. 9(월) 오후 ~ 12일(목) 오전까지

■ 장소 : 칼빈(Calvin)부흥사회

유튜브생중계 : 조한우TV와 CYN(최용남)TV, 박옥재TV 로 전국과 전 세계로 생중계 할 계획입니다.

■ 문의 : 대회장-이진구 목사, 총강사단장-조한우 목사 010-9868-9185
강사단장(진행위원장)-최용남 목사 010-3007-9142

합동과 통합의 칼빈(Calvin)부흥사회 남경산기도원 구국(救國) 산상축복성회

구 분	11월 9일(월)	11월 10일(화)	11월 11일(수)	11월 12일(목)
1부 새벽 5시 30분 응답의 시간		조한우 목사 (구미 형곡반석교회)	이광현 목사 (공주 승원교회)	김병훈 목사 (동해청운교회 원로)
2부 오전 10시 30분 신유의 시간	특강 부흥사의 강단 매너 11일(월) 오후 4시 초대 대표회장 김병훈 목사	최용남 목사 (광주 빛고을말씀교회)	김종환 목사 (울산신명교회)	김창호 목사 (새찬양교회)
3부 오후 2시 30분 은혜의 시간	정철수 목사 (하늘소망교회)	배성찬 목사 (순천행복한우리교회)	김경현 목사 (구미 주향교회)	
4부 밤 7시 30분 성령충만의 시간	서정우 목사 (새로핌교회)	이진구 목사 (목포신일교회)	박순희 목사 (미래교회)	